

I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역사 기행

11월 8일(토),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역사 기행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행에서는 조평세 박사의 현장 해설을 통해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과 자유의 정신을 심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헌신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토대로 이어진 흐름을 조명했다. 더불어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사역이었지만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남긴 루비 켈드릭 선교사에게 대표로 헌화했다.



자유역사포럼 정기 모임

지난 10일(월), 1776라운지에서 자유역사포럼 정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된 WEA 서울선언문을 함께 검토하며, 해당 선언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다양한 오해와 논란을 사실에 기반해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의 핵심 내용과 역사적·신학적 의미를 정리하며, WEA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776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

지난 14일(금), 1776 아카데미 심화과정인 <현대 보수주의 인물열전>이 시작되었다. 해당 과정에서는 12주간 러셀 커크, 윌리엄 버클리, 휘태커 챔버스 등 현대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집중 연구한다. 수강생들은 조평세 박사의 지도 하에 각 주제 인물을 발제하고 토론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행본 한 챕터를 집필한다. 단행본은 출판사를 통해 내년 초 출간될 예정이다.

추수감사절 기념 온라인 세미나

지난 27일(목), 추수감사절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에서 조평세 박사는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전통"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다. 신앙을 위해 플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스칸토의 중재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인디언 학살설이 사실과 다름을 바로잡았다. 이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첫 공식 추수감사절을 선포한 역사적 배경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 오늘날의 형태가 확립된 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대표 인사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Merry Christmas!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사람의 수고가 참 역부족임을 느끼던 찰나에, 마침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기다리는 신랑이 있고, 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달에는 우리 1776연구소에 정말 큰 경사가 있네요! 우리 연구소에 들밖에 없는 상근 연구원이 글썽 결혼을 한답니다~ 서로요!! ^^ 지난 봄에 막 개소한 1776연구소 여의도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연구소에 일이 너무 많았던 건지 아니면 그 반대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연구소가 당장 문을 닫게 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 12월 13일에 새 가정을 이루는 동환 연구원과 장미 연구원에게 많은 축복을 보내주세요!

내년에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1776연구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2월에는 6~7일에 보수주의 청년 리더십 서밋을 기획중이고, 20~21일에는 소망수양관에서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단행본 두 권 출간도 기획 중이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떠나는 견미단3기도 이미 모집중입니다. 미뤘었던 보수주의 잡지 발행도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애초부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때때로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12월 27일 오후에는 황성준 위원님과 저의 특강이 있고, 이날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연말파티도 있습니다. 아직 1776연구소 서재를 구경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와서 온기를 더해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15:58)

조평세 올림

12월 연구소 동정



견미단 3기 모집 및 1차 온라인 설명회

청년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 미 동부와 하와이를 탐방하는 견학 프로그램인 '견미단' 3기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총 두 번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첫번째 온라인 설명회는 12월 29일 저녁 9시에 있다.

트루스라이징 상영회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 콜슨센터와 포커스온더패밀리가 '기독교 서구 자유문명의 위기'를 주제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트루스라이징'을 1776라운지에서 상영한다. 12월 두 차례에 걸쳐 상영회를 진행하며, 관람 후 스테디를 원하는 인원에게 한해, 콜슨센터가 제작한 가이드북을 토대로 스테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우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 모임

12월 17일(수), 조평세 박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남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 모임을 진행한다. 해당 모임에서 조평세 박사는 2기 견미단 원들과 함께 '청년 이승만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하며, 특별히 견미단 프로그램을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1776연구소 연말 파티

12월 27일(토), 1776연구소 크리스마스 파티 및 송년회를 진행한다. 파티에 앞서 1776연구소 자문위원인 황성준 위원의 특강(주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가)과 조평세 박사의 특강(주제: 워싱턴의 델라웨어 크로싱)이 있으며, 이른 저녁 본격적인 송년회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자유시민교육 11.5기 견미단반 수료식

12월 28일(일) 저녁, 10주간의 자유시민교육 11.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2기 견미단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된다.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조평세 월드뷰 발행사



"지난 9월 낙태 자유화와 약물낙태에 반대하는 70여 시민 단체가 모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어연)'을 발족했습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태어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프로라이프' 주제를 지면에 풀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10월부터 태어연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앞 1인 피켓 시위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켓 문구는 이렇습니다. '임신 6주 차 태아 심장, 힘차게 뛰고 있어요, '여성에게 치명적인 낙태약물 필수약품 [지정] 절대 반대', '낙태 주수 삭제해서 만삭까지 낙태허용? 절대 반대', '낙태가 임신중지라면 살인은 생명중지?' '남인순, 이수진의 원, 태아 만삭까지 죽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하라!' ...

"낙태와 국가의 양심"

- 로널드 레이건 / 조평세 역



"1983년,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낙태 합법화 판결 (Roe v. Wade) 10주년을 기념하여, 임기 중 '낙태와 국가의 양심'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 중 단행본을 출간한 대통령은 레이건이 유일하다. 이 글은 6년 넘게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생명운동을 통해 대한민국도 국가의 양심을 회복하길 바라며, 이번 달 월드뷰 '프로라이프 특집호'에 해당 원고 전문을 국내 최초로 번역하여 실는다. 번역은 조평세 부편집장이 맡았다." ...



December, in the History of Liberty

- 12월 1일 (1955)**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가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되면서 현대 미국 민권 운동이 촉발됨.
- 12월 2일 (1923)**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이른바 "먼로 독트린"을 천명하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추가 식민지화 시도를 금지한다고 선언함.
- 12월 2일 (1859)** 하퍼스 페리의 미국 군수창고를 습격한 뒤 반역죄로 기소된 노예제 폐지 운동가 존 브라운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타운에서 처형됨.
- 12월 4일 (1884)** 조선에서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삼일천하로 끝남. 4개월 전 입국한 알렌 선교사가 부상당한 민영익을 살려내고, 그 보답으로 고종은 제중원 설립을 허락함.
- 12월 6일 (1865)** 미국 수정헌법 제13조가 비준되어 노예제가 공식 폐지됨.
- 12월 7일 (1787)** 델라웨어가 미국의 새 연방 헌법을 최초로 비준함. 그래서 주 별칭이 The First State.
- 12월 7일 (1941)**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가 약 200대의 일본 항공기에 의해 폭격을 받아 거의 3,0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함.
- 12월 8일 (1991)**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하는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이 사실상 몰락함.
- 12월 10일 (1948)** 국제연합 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선포함.
- 12월 12일 (1948)** 대한민국을 유엔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함.

- 12월 13일 (1937)** 일본군이 중국의 난징을 점령하고 6주 동안 중국 민간인 약 20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강간, 살해함. 이른바 난징대학살.
- 12월 15일 (1791)** 미국 헌법의 첫 10개 수정조항인 권리장전이 버지니아주의 비준으로 발효됨.
- 12월 15일 (1961)** 나치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이 홀로코스트에서 수행한 역할로 인해 예루살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음.
- 12월 16일 (1653)** 잉글랜드 내전에서 찰스 1세 왕이 패배한 뒤, 의회군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이 잉글랜드의 호국경으로 선포됨.
- 12월 16일 (1773)** 미국 독립운동가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한 채 보스턴 항에 정박한 영국 선박에 올라 342상자의 값비싼 차를 바다에 던진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
- 12월 16일 (1944)**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아르덴 숲 75마일 전선에서 대규모 반격을 개시하면서 벌지 전투가 시작. 몽고메리 장군과 패튼 장군의 방어로 독일의 공세 좌절.
- 12월 17일 (1903)**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가 3년에 걸친 실험 끝에 최초의 동력 조종 비행기를 띄우는데 성공.
- 12월 25일 (336)** 서방 교회가 주후 336년경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 축일로 기념하기 시작.
- 12월 25일 (1776)** 미국 독립전쟁 중 조지 워싱턴이 병사 2,400명을 이끌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트렌턴(뉴저지)에 주둔하던 1,500명의 영국-헤센(독일 용병) 군대를 기습 공격.
- 12월 30일 (1803)**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1,500만 달러에 매입하며 미국의 영토가 거의 두배로 확대.

11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은	김○애	김○준	박○민	박○인	성○준	이○한	이○민	정○원	추○령
권○빈	김○희	노○스더	박○재	배○호	손○광	이○운	이○은	정○민	하○랑
권○운	김○은	도○현	박○혁	베드○센터	손○은	이○빈	이○준	정○슬	한○훈
권○리	김○주	만○국제 학교	박○형	변○연	양○호	이○환	장○재	정○아	허○은
권○현	김○실	맹○기	박○주	서○민	양○진	이○진	장○	정○용	
김○아	김○희	문○아	박○기	서○경	오○지	이○영	장○범	조○호	
김○연	김○진	민○나	박○기	서○현	원○슬	이○혜	정○교	주○규	
김○종	김○일	민○환	박○준	성○술	이○현	이○란	정○연	차○욱	

1776연구소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